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제14대 총여학생회

cool-energy@hanmail.net
전화 2123-3645(구내 3645)

떡볶이 수다

부제: body talks 자료집



행사합본호

5 2002
M A Y



interview

마이머 노.영.아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이달의 이야기 **body talks** - “내/네 몸에 말 걸기”

너의 여자경험? 나의 여자경험

나의 성 정체성 찾아가기

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서 오는 성폭력

여성주의로 영화 읽기 **집으로...**

다다의 “니가 성폭력을 알아?”

여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40여장의 이력서/남들처럼 살아가기

7만원 여행기
엄마와의 여행



a letter from the editor

이번 맥북이수다는 'Body Talks' 특집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네 몸에 말 걸기'라는 주제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성(性)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성(性)지식이나, 자신의 몸과 다른 몸에 대한 일반상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맥·수는 우리 몸에 대한 솔직한(적어도 솔직하려고 노력한)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 그만큼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는 성.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Body Talks'는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학내 행사와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는 특집글이 넘쳐서, 인기(?) 고정코너 '낯선 곳에서'를 쉽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호에도 알차게 준비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엄마와의 천체관측 여행, '칠만원 여행기'에는 짙한 감동이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의 상우와 '집으로...'의 상우를 비교한

영화평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극배우 이경미씨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을 잘 대접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연극(버라이어티 모놀로그)을 통해 억압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내/네 몸에 말 걸기'가 내 몸, 그리고 상대의 몸을 좀 더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body talks -

"내/네 몸에 말 걸기"



들어가며...

고등학교 시절 가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 때 당시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었던 '자위'에 관한 이야기였다. 선생님께서는 "자위는 남성의 경우에는 자주 해도 무방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자주 하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난 그때 자위가 왜 여성의 몸엔 안 좋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묻는다면 내가 자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혹은 자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가정 선생님의 '막연한' 논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궁이 된 듯 했다. 왜냐면 자위를 한다는 것, 즉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것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 사이에서도 '지세'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불결한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주변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연애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연애에 대한 관심 이면엔 나의 성적 판타지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개는 팔이 참 예뻐, 개 팔을 쓰다듬어 주면 참 기분이 좋을 거야' 혹은 '그 애랑 키스를 해본다면' 등등의 판타지는 날 자주 연애에 대한 환상으로 몰아넣었다.

그 무렵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 난 친구 녀석 하나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그 친구는 나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했다. 난 그 친구와의 친밀감 때문에 기꺼이 같이 어깨동무를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다가와 안으려고 했으며, 사실 그 친구와 전혀 안고 싶은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래?'라고 말하거나 '싫어'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 친구가 칭찬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친구의 입술이 내 얼굴에 다가오려는 순간 제지를 했지만 그 제지의 말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어려웠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불쾌한 경험이었다.

아마도 이 경험은 그 친구와 나의 성적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 친구는 내가 그 친구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그래 예도 날 원할지 몰라'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그리고 난 내가 싫은 것에 대해 얘기하길 주저했던 것은 분명 이날의 불쾌한 경험의 원인이 된 것일 수 있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없는 나의 몸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혹은 부재에 의해서 오는 여러 성폭력적인 경험들 이제 이 모두를 더 이상 접하기 싫다~!!

body talks 행사와 일정 소개



첫 번째 이야기

"내/네 몸이 궁금해?"

화관 앞에서 성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내 본다.

"우리 잘 아는/하는 걸까?"-성적 커뮤니케이션 훈련, "월경 똑바로 보기" 자보전, 피임기구전시와 그림을 곁들인 전시물 등
그리고..... <월경을 하다>마임, 성미광의 <생리대 드레스>퍼포먼스

5월 29일 (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 여성 커뮤니티와 리더십 7조 <월>미다 <경>사났네)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에 대해 얘기하는 수다 한 판"

영화 [Girls On Top]을 보며 우리의 성에 대해 얘기해보자!!

"TOP" 상태에 도달한/도달하고 싶은 여성들의 성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성은 남성들만의 이야기 거리는 아니지요? 이제껏 꺼려왔던 자위, 오르가즘 등등의 우리들의 성에 관한 이야기 한 판 벌려봐요

5월 28일 (화) 저녁 6시 위당관 (인II) BO9



(월경을 하다)마임

/만든 이 홍어

언제나 불쾌한 손님 월경. 더구나 밖에서 월경이 시작되면 더욱 더 찜찜해진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고육 한달에 한 번 내 몸이 달을 따라 순환을 한다. 내가 여자라는 의미, 내 몸이 순환하고 있는 작은 우주라는 의미를 마임으로 표현했다.

/홍어 프로필

마임을 배운 지 일 년째.
계속 마임을 배우고 있다.
작년과 올해 5월 춘천국제마임축제에 참가를 했고, 작년 12월엔 한국마임 2008에서 참가를 했다. ('오르골 인형', '그녀를 만나다' 공연)
우먼엑시던탈의 멤버.
<월경을 하다>는 작년 월경축제 때 초연한 작품.

(생리대 드레스) 퍼포먼스

/만든 이 생미경

안에서 밖으로의 시도로 공간의 이동과 함께 여성자신조차도 부끄럽거나 불결하게 인식하는 생리대의 기존 기능을 탈피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것입니다.



(나의 여자경험? 나의 여자경험!)

- 20여 년 간 여자경험을 한 여학우가 섬

한 친구가 겪은 일이다. 그 친구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의 한 남자가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더라. 내용인즉슨.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여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다. 그 친구와 나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글자 그대로 '잠만 자고서' 우리 집을 나섰다. 그런데 도대체 그녀가 무엇을 바랬던 것인지 모르겠다. 혹시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읽은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그녀가 정말 친구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그

의 집에 간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남자의 착각인가? 재미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그 여성에 대한 반응들이었다. 리플의 압도적인 비율은 남성들이 차지했고, 모든 내용은 '그냥 보내다니 넌 바보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성관계-를 바라고 온 거다'라는 것이었다.

'여자경험 많은 내가 잘 아는데, 그 여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바라고 온 거다'

수많은 남성들이 보인 자신들의 "여자경험"에 대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러니! 비록 소수였지만, 생물학적으로 XX염색체를 지닌 존재들이 모두 '절대 그녀는 뭔가를 바라고 아니다, 그냥 친구 집에 놀러갔을 뿐'이라고 댓글을 달아대도 그들의

자신감은 한치의 수그러짐이 없었다 한다. 자기를 말대로 '여자경험이 많은 사람' 이기 때문일까?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자신의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임신을 넘어서 섹스에 대한 이야기, 피임과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한 상식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정보는 사방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 그만큼 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는 터.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는 분명 자신이 겪고 또 알고 있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무언가는 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들이 과연 믿을만한 것들일까?



알쏭달쏭 남성심리' '행동으로 알아보는 그녀의 속내' 류의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나가는 어느 잡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것이다. 여성들만의 모임에서, 남성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남자들은/여자들은 왜...?' 하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화제다. 돌아다니는 정보와 이야기는 많지만, 그만큼 그것이 나 혹은 나의 상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

누구의 시각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여성이/남성이 어떠하다는 담론들이 형성되는가. '여성은/남성은 이렇더라'는 수많은 '설'들 속에 진실로 여성과 남성 그 자신들의 느낌과 욕망, 경험들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것일까? '남성은 어떠해야한다'는 기준 속에 매여 남자들은 이렇 거라는 막연한 추측만 키워오고 있던 것은 아닐까? 여자경험 많은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여자'가 과연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앞의 예를 곱씹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건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난무하는 설들 속에는, 우습게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더라' 식의 이야기만 돌뿐이다.

이제는 변죽 울리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접어야 하지 않을까, 나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그가 자신의 느낌과 경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자.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자. 내 몸, 그리고 너의 몸, 나의 욕망과 너의 욕망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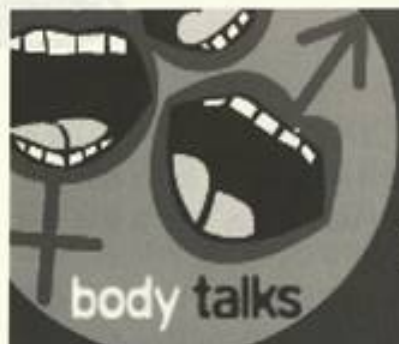
땃불이고 싶은 말 하나.

여자경험은 이 강고한 남성중심의 헤테로 섹슈얼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을 터.

여성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바라건대, 이제는 제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좀 버리고 그녀들의 이야기에 겸손히 귀기울이시길. ♪



그림: 한국여성민우회 자료집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나의 경험, 나의 시각에서의 나의 몸 1

Body Watching

~ 최 성 향 (자연과학부 4학년)

.....과학적 근거.....객관적 자료.....생리적 실험 결과.....믿을 만한 통계 수치.....-.-;;

21세기 Post-Genome 시대, 신 우주기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어떠한 사실도 그냥 믿을 수는 없다. 반드시 그 진실 여부를 판명해 줄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실험결과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통계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의 판단은 옳곧게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얻어진 결론들은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다름 아니다.....???

과학이나 마술이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과학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중세

시대에는 마술과 연금술이 성행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마술사나 연금술사들의 탐구와 실험 과정은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일 뿐이었다. 마술사와 연금술사조차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늘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인간이 조작한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결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과학이 바로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인간이며, 그 변화된 조건에 맞게 언제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상들은 사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망 천지에 과학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단순히 과학기술로 탄생한



물건만 말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

니, 살아가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야만스럽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은 거꾸로 과학적인 것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맹신주의를 의미한다. 우리는 과연 중세 마술의 시대에서 벗어난 것일까. 마술이 과학이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에게 과학은 마치 마술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어떤 논리나 결론도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는 데에는 장사가 없다. 비록 그 근거가 정말 객관적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눈속임하고 있을 뿐, 그 논리들은 따지고 보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허다할 테지만, 과학이라는 전문적 지식의 분야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어서는 부정하기조차 힘들다. 결국 우리들은 연금술사가 보여주는 희한한 화학반응에 넋을 잃고 그의 말에 수긍했던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옳다고만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너를 인간으로 보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은 많은 의·과학자, 철학자, 문학가들에게 있어서 신비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거의 남성의 시각에 의해 재단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관찰하지도 않고 상상하는가 하면, 여성에게 특정한 특질들을 부여하는 원인이 여성의 몸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 생식기가 몸 안으로 들어간 형태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고, 여성의 자궁은 온 몸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여성의 뇌에서는 온갖 불순한 생각이나 병이 생겨나게 된다고 믿기도 했다. 심지어 맨 처음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마녀의 상징이기도 했었다. 단지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은 여전히 과학의 이름으로 재단되어 토막난 채 뒹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의·과학 실험에 있어서 표준 인간은 20-30대의 건강한 남성

이다. 여성의 생식기는 특별(?) 취급이다. 여기서 '특별'이란 그 실험이 성공적일 경우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리전 증후군(PMS)은, 어느새 기분이 언짢은 상태의 여성을 이르는 말로 대치되어 버렸다. 성형외과에전을 치료하기 위한 갖가지 과학적·비과학적(-,-) 노력들이 이어지는 동안, 여성의 생리통 진정이나 피임을 위한 약품은 여성의 관점에서 제조된 경우가 거의 없다.

단순히 여성의 몸이 재료(!)가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모성애를 비롯해 생존 본능이나 남성보다 긴 수명, 공동체의 영위, 미적 가치의 추구 등이, 모든 암컷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특성임을 주장하는 자연 다윈멘터리가 버젓이 우리 눈앞에 방영되고 있다. 요즘엔 유전자의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여성적인 특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거나, 동성애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예측들까지 쏟아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하나 하



나의 예들은 너무나도 명확히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성의 성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물학적 대상으로만 구분된다는 것이다. 앞서 과학이 단순히 기술 혁명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바로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성의 몸(性)은 그 오랜 과학의 시간 속에서 주체가 되지 못해 왔다. 언제나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 그리하여 남성들은 영원히 알 수 없고, 여성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아서도 안 되는 기묘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눈을 뜨고 나를 보자.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회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대는 잣대를 아무 고민 없이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창하게 여성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학의 시선으로 자신을 난도질하기 이전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과 여성을 바라보자.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는 것이 진정 과학적이다. ♀



나의 경험, 나의 시각에서의 나의 몸 2

한 달에 한번씩 끼워지는 빨간 반지

by 후추

내 손에는 한 달에 한번씩 빨간색 반지가 끼워진다. 일명 '월경 반지'라고 하는 것. 악세사리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다니는 내 손에 빨간 꽃 모양의 반지는 매우 '뽀다'는 느낌을 준다. 다소 유치한 모양의 빨간 반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내게 하나의 재미거리로 자리 매김 한지 오래다. "반지 예쁘네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월경반지예요."라고 말하면 그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뉜다. 망망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어! 괜찮다. 나도 하나 사야지!" 하는 동조 세력들, "그게 뭔데요? 월경 때 되면 알려주나요?(이런 기능성 반지가 개발되면 진짜 좋겠다~ -,-)"라고 되묻는 반문형들.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 반지의 의미를 알게되었다.

월경 반지를 끼고 다니게 된 것은 1년 반정도 된 것 같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는 "잠깐만 나 편의점 갔다올게~ 생리대 사야해!"라고 했더니 한 친구 하는 말이 "아~ 너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떻게?"였다. 그러며 누가 들었나 주위를 살피는 친구. 왜 그래야 하지? 들으면 어때서? -a 편의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마찬가지다. 편의점 마크 새겨진 흰 봉투 놔두고 구지 검은색 봉투 찾아 넣어주는 건 또 뭘데? 생리대도 똑같은 판매 상품 아닌가? 이상하다! 여자들이 생리대 빌리는 장면을 보자면 어느 암표상들 저리 가라다. "너 생리대 있니?" "응!"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옆에 바짝 붙어서는 한 손에 가려지게끔 움켜지고 은밀히 건네 준다. 그리고는 그것을 껌싸게 받아드는 그 손에서는 남자

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치밀함이 보인다. '왜 이래야 할까? 왜?' 라는 의문에서 월경 반지 끼기는 시작된 것이다. 월경 반지를 끼고 보니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알아서 들 수 있거나 인라인 타러 가자는 말 안하고,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한 날 배려해준다. 나 스스로도 귀찮고 더럽다고 생각해 오던 것에서 월경을 긍정하며 빨간 반지 끼는 신나는 날로 머릿속에 재인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월경 반지가 개인 차원에서 월경을 드러낸 것이라면 월경 페스티벌은 하나의 축제로 월경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고 심지어 즐기려고 하는 행사이다. 참 별의별 페스티벌 다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작

년에 월경 페스티벌에서 '완경' - 폐경이라는 말이 달렸다.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반해 연륜이 쌓이면서 과제를 마치고 완성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연설외로 참석하게 된 그 행사가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되어 빨간 반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관찰 할 때마다 생각한다. 생리대는 암표상 같이 건내고 월경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똑같은 세상에서 하루종일 월경, 월경, 월경 해대며, 생리대를 뿌리고 월경을 주제로 랩이나 마임등을 하는 멋들어진 행사가 있는 것이다. 암표상 같은 그녀들과 페스티벌까지 해대는 그녀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월경하는 여자인 것이다. ♀



나의 경험, 나의 시각에서의 나의 몸 3

자위

(내가 즐거운 일, 내 몸이 즐거운 일)

요즘은 다들 당당하게 자위를 얘기한다. 베티 도슨이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원제 Sex for One, 현실문화연구 펴냄)는 책도 냈고, 어떤 시사잡지에서는 피쳐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신이 나면서도, 한 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다. 혹자는 남성보다 더 특별한 여성의 오르기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뭐가 더 특별한지도 설명해 주면 좋았을걸. 내 생각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베티 도슨은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위하라"고 권고했다.

"자위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모르는 이에게 만족할 섹스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이다.

자기 몸을 잘 모르는 사람, 덧붙

여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관계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말이다.

베티 도슨은 그녀의 책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에서 자위의식 8단계를 제시하며 권고해주고 있다. 그녀의 8단계를 여기에 옮겨 놓는다.

1단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사랑해"라고 크게 말한다.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준다. 조금은 어색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포용한다. 그 다음에는 "나는 나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2주 동안 이런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2단계 욕감적인 욕목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 쏘를 켜놓거나 향비누, 거품비누, 오일 등을 준비하면 더 좋다.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다음 물에 몸을 담그고 숨을 깊이 내쉬어라. 그런 다음 온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성적 인 연상이 시작되면 손가락이나 손 전체를 성기에 대고 위아래로 매만진다. 음핵이 긴장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숨을 천천히 쉬었다 빠르게 쉬었다 하며 조절해본다.

/3단계 거울앞에 서기



몸의 물기를 말린 뒤 은은한 불을 켜놓고 벗은 채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의 단점에는 신경쓰지 마라. 대신 연인에게 하듯이 자신의 신체 중 좋아하는 곳을 칭찬해보라. 풍만하면 자신을 루벤스풍의 누드모델로 생각하고, 골격이 크면 당당한 아마존의 여전사로

생각하라. 말랐다면 날렵하고 우아한 체형에 탄복하라. 나이가 많다면 우아한 여왕의 이미지를 떠올려라. 당신의 몸은 신성한 예술작품이다.

/4단계 스스로 마사지하기

몸 전체에 오일을 바르면서 자기 몸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바라본다. 누르기의 강약을 조절하며 아픈 부분은 더 많이 만져준다. 얼굴 근육을 수축했다 폈다 하면서 긴장을 풀어준다. 엄지손가락을 두 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곳에 올려놓고, 머리 전체를 손가락 끝으로 꺾꺾 눌러준다. 복부 전체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허벅지, 종아리 순으로 내려간다. 오일을 바를 때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정성껏 바른다.

/5단계 자신의 성기를 사랑하기

두손을 사용하므로 작은 거울이라도 벽에 기대 수 있는 게 좋다. 얼굴을 틀어볼 때처럼 꼼꼼히 탐구한다. 대음순을 헤쳐서 질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 위에 있는 소음순의 크기와 촉감, 양쪽의 크기 차이도 확인해본다. 소음순 속 클리토리스의 색깔과 크기도 확인한다. 사람마다 다 다르



니 '정상이 아닐지 모른다'는 고민은 접으라. 숨을 깊이 쉬며 질근육과 항문의 긴장을 풀고 두 손가락

정도를 이용해 천천히 질 내부를 어루만지고 클리토리스 주위도 만져본다. 질 분비액이 나오면 냄새를 맡아본다.

/6단계 거울앞에서 춤추기

대담한 몸놀림을 시도해본다. 엉덩이를 돌리고 아랫배를 내밀어본다. 상반신을 비트는 재즈댄스도 시도해본다. 자신을 여사제나 무술 사범이라고 생각해봐도 좋다. 기마 자세를 취한 채 바이브레이터 등의 자위 기구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자신의 성적 이미지와 몸놀림에 스스로 도취해보라.

/7단계 분위기 만들기

침실에서 최고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자신이라는 특별한 연인'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준비한다. 돈을 굳이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 쏘 불을 켜놓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걸 수도 있다. 향을 피우

거나 향수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다. 부드러운 음악은 긴장을 풀어주고 하드록은 사람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음악보다는 자신의 숨소리에 더 집중한다.

/8단계 오르가슴에 이르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면 한껏 기지개를 펴고 마음을 편히 갖는다. 천천히 기분을 고조시키며 온몸을 애무한다. 유두와 성기는 섬세하게 마사지한다. 오르가슴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근육을 긴장시켜 시간을 늦추며 자극의 물결을 탄다. 사람마다 자위하기 좋은 장소와 분위기, 오르가슴에 이르는 시간과 형식은 제각각이다.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내를 갖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간다. ♡





나의 경험, 나의 시각에서의 나의 몸 4

오르가즘 - Let's be on top

얼마 전 본 "걸스온탑"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속 주인공들이 보여준 성에 대한 반응과 행동들은 내게 기묘한 이질감을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영화 속의 세 10대 여자아이들(1)은 진정한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느낌을 찾기 위해 꾀꾀하고도 대답한 일들을 벌인다.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레즈비언과 자위를 해 보기도,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오르가즘에 열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채팅을 통해 남자를 구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오르가즘을 느껴보고 싶어하는, 아주 대담한 행동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종일관 말한다. "오르가즘이란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것, 좋은 것, 매우 중요한 것!" 이라고. 더욱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오르가즘 때문에 자신들이 출전한 배구 경기에서 이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쯤 되면 좀 심하다 싶다. 과연 오르가즘이란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면서 문화의 차이의 심각성을 다시금 고려해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의 약간의 허구성을 제외한다면, 이 영화가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거의 오르가즘에 대해, 성적 접촉- 그것이 스스로 접촉하는 것이든, 남이 주는 느낌 같은 것-에 대해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오르가즘에 대해 대놓고 말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느껴보고 싶다고, 은밀하고 조용히 속삭거리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성적 경험에 관한 이야기조차 거의 거론되지 않는 마당에



오르가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기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때때로 보게되는 이야기들, 익명 게시판이나 화장실 신문의 깨알같은 글씨들에서, 오르가즘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자신이 느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으로써 오르가즘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다. 영화 속의 맥라이언처럼 때때로는 느끼는 '척'을 해야만 하고, 어떤 때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척, 느끼지 않는 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내가 느끼고 표현해야 하는 즐거움이,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제약받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의 욕망 자체도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다. 또, 말해선 안 된다고, 내가 알고있고 느끼고 있지만 부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입이 근질거리지만, 꼭 다물고 있어야만 한 경우도 종종 만난다.

때때로 우스개 소개

처럼 "첫날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누워만 있으라"라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 여자의 오르가즘은 음란 또는 무언가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생각하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 신문의 한구석이나, 또는 익명게시판에 그렇게 많은 글들이 나열되는 건가 보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걸스온탑"의 주인공들이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 욕망에 솔직하고, 그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포유류 중에 언제나 ready to sex인 종은 인간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 여성만이 끊임없는 성적 접촉에서도 지속적인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알다시피 남성을 한번 '빼고' 나면 다시 느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조차 이야기하기 못한다는 상황은 정말 고통이요,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4





나의 성 정체성 찾기 1

교의 생각

- 이송규호 (사회학과 09)

...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는 동성애자이다. 서른이 훨씬 넘어서도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겠지... 주변의 압력과 장남이라는 위치, 그리고 노부모의 애타는 시선에 등떠밀려 결혼을 하였다. 물론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가끔씩 소식을 듣다가 몇 달 전 만났다. 결혼한지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가족, 친척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한다.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라고 묻지는 못했다. 너무 잔인한 말인 것 같았다.

... 내가 알고 있는 그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의 얘기. 자기네 병원 안에 에이즈 환자

가 있다고 한다. 격리 시킬 의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격리 시켜 입원하고 있단다.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동생'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단다. 병원 사람들이 들어 애인 관계가 아니냐며 쭈근댄다고 한다. 환자의 질병에 대한 것과 같은 환자의 개인 정보는 같이 근무하는 병원 사람들 사이에도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더구나 에이즈 같은 것은 철저히 비밀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알고, 얘기한다고 한다.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정상/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그런 기준이 두부 자르듯 확실히 그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는 정상적

인 것들이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는 시대인 것 같다. (이성애)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성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하나 '정상적' 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성애'를 종교로서 확실히 믿고 있는 듯하다. 두터운 이성애 장벽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 조차 묻지 않고도 당연하게 '난 이성애자야'라는 설정을 해주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는가?

최근 들어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동성애를 '이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못지않게 호모포비아도 더욱 격렬해진 것 같다. 또한 대학 사회내에서의 이중성도 보인다. 친구가 커밍아웃을 했다면 꺼리낌없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 가족이 커밍아웃을 하면 뜰어 말리거나 인연을 끊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¹⁾ 이

제 극단적으로 달려가든가, 혹은 아예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²⁾

에이즈 또한 마찬가지이다. 에이즈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사회 정치적 질병'인 것이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과,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사람들이 같을까? 앞의 그 환자는 격리되어야 했을까? 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며 그것은 동성애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³⁾

행복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탐색도 없이, 그리고 타인의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을 억압하고 삶이 행복하냐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의 극본대로 따라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당신은, 정말 행복하냐고...⁴⁾

1) 2001년 4월 이송규호 사회학입문 설문조사 결과

2) 동성애자의 커뮤니티는 공관물에 해당되어 사이트 폐쇄를 당하기도 한다. www.exzone.com이 그 대표적인 사례

3) 신문동독, 한겨레 21 2007년 8월 8일 '에이즈는 없다'



나의 성 정체성 찾기 2

내가 이반이 "여닌" 몇 가지 이유??

나는 로맨틱 코메디를 즐겨본다. 그 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화사한 배경을 뒤로 서로의 감정을 주고 받으며, 마냥 즐겁기 만하다. 영화에서 그들의 모습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카메라에 담겨지고,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은은한 음악까지 잊지 않고 삽입된다. 심지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말다툼들도 마냥 행복해 보이기 만하다. 뭐니뭐니해도 로맨틱 코메디의 백미는 해피엔딩이다.

영화 속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갈등이 폭풍우같이 쓸고 지나간 후 그들은 화사한 결혼식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키스를 한다. 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나는 친구의 연애담을 즐겨 듣는다. 나의 친구는 남자친구와 있었던 경험들을 나에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 얘기해주길 좋아하며, 나 역시 그런 얘길 듣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래서 좋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술자리에서 의례 남자 얘기를 하게 된다. "A는 상냥해서 좋아.", "B는 귀엽지 않니? 유머도 있고...". "난 개 어리버리해서 좋던데..." 그리고 만약 주변의 친구 중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연애를 하기 전부터 하는 과정 그리고 끝날 때까지 친구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 소개팅 미팅 주선에서부터 연애 도중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카운셀러까지...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로 하여금



자주 "넌 왜 이제껏 남자친구 한 명 없니?"라는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면서 '나도 남자친구가 있으면 저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들은 한없이 다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반이다. 난 내가 날 이반으로 정체화하기 전에 내 주위에서 이반 커플을 많이 보지 못했으며(하지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이반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영화를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넌 왜 아직도 여자친구 하나 없니?"라고 묻지 않았다. 당연히 난 여자인데 때문에 모든 나에게 물을 땀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물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여성에게 애뜻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이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친근한 감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덮어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난 단지 남자를 아는 것보다 여자를 아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성보다는 여성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반으로 날 정체화하기까지 처음엔 내가 이반이

라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사실 그 당시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했다. 아주 먼 곳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처럼), '내가 이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땀 모든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난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라는 생각에....하지만 지금 난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수단을 통해 난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 난 이반이어서 행복하다. ♡





어깨에 손 얹지 마 무거워!!!

내 바지에 손 좀 넣지 마!!

시도 때도 없이 쫓물락 대지마!!
니 살인 줄 알아?

비디오 방 같이 갔다고 내가 원하는 줄 알아?
오산이야...!!!
난 단지 같이 영화가 보고 싶었다구...

안 돼요 돼요 돼요...(?)웃겨...
내가 안 된다고 할 땐 안 되는 거야..!!!



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서 오는 성폭력 1

연애의 기초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제 나도 연애를 한다'는 설레임만큼이나 어색함과 어설피름, 미숙함으로 어쩔 줄 몰라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이 '연애 대란' 시대에 연애라는 단어가 낯선 것도 아니요, 주위에서 많은 커플들을 보며 마치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듯이 익숙해져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는 가라는 물음에 나만의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척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性)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와 가슴과 몸이 따로 놀아 나를 괴롭게 했다.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남자 친구 때문에 여자 친구를 못 만

나는 일이나 나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없었지만 유독 성과 관련해서는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다.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연애의 환상에서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연애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해야 할 짓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그것을 따라가서는 결코 나의 욕망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마음과 몸과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약 2여년의 첫 연애 기간은 내부의 나끼리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성(性)에 관한 부분은 나의 패배였다. 나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이제와서는 예전 남자친구를 성폭력범으로 고발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말이다.

open your mouse, open your ears!!

생각해보면 나는 참 언어가 부족했다. 내가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 내가 좋을 때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했다. 나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하는 데에 몸을 움츠린다. 천한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해석을 넘어, 20여년 동안 당당하게 말하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특히나 성(性)이라는 은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 수줍음과 조심스러움은 결국 연애 관계에서 나를 끌려가는 위치에 놓을 때가 많았고 결국은 데이트 강간까지도 허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섹스는 언제나 남자 친구에 의해 먼저 요구되었고(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언제나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당연히 아.니.다.) 처음 몇 번은 마치 실수같이 피임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너무 안일했던 것이고 남자친구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눈곱만치도 없이 자기 욕망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무식하고 폭력적이었으며 나는 또 얼마나 바보였는가.



말했어야 했다. 정말 싫을 때는 크게 입을 벌리고 "나는 지금 니가 안 땡겨!"

당장 헤어지자고 했어야 했다. 질외 사정을 피임인 줄로 알고 있으면서 지가 잘났다고 떠들던 남자친구에게 "니가 얼마나 머저리 같은 남자인지 알아"라고, "넌 지금 성폭력을 저지르는 거야"라고.

내 남자친구는 들었어야 했다. 배란기에 가까워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나의 목소리를. 내가 차마 싫다는 말도 못하고 있지만 결코 yes가 아닌 no의 상황이었음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난 그 때"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어" "우리 커플만큼 잘 지내는 커플도 없어"라는 말로 나를 위로했었던 것 같다. 그 때 내가 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준 한 마디! 지



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 사람보다 훨씬 말 잘 통하고 괜찮은 인간 많다. 아무 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진실하게 다가올 때가 또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다. 연애는 행복하게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다. 솔직하지 못하다면,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침묵을 은연 중에 강요하는 거라면 그 연애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나는 그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야 많은 생

각을 정리했다. 헤어지는 절대적인 이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과 말을 아꼈다는 것은 다른 부분까지도 삐걱거리게 하니까 말이다.

남자 친구에게 좀 더 cool 하게 말하자! 여자 친구의 말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읽으려는 세심함을 가지자!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 다다의 "너희가 성폭력을 알아?"

body talks 당신은 연애 성폭력의 안전지대?

- 다다 (연세대 대학원 문학박사 겸통과장)

"저.. 저.. 수줍...데이트 강간이 뭐야?"

"말 그대로, 데이트 하는 도중에 강간을 한다는 거지."

"뭐? 에이, 그런게 어디있어. 그건 말도 안되. 데이트 중에 그.. 저.. 그건 불가능하잖아."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데이트 중에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응...."

"왜?"

"그러니까.. 저기.. 응.. 그.. 뭐시냐.. 그거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응..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강제

로.. 그런는 거잖아."

"아유, 답답해. 넌 강간이라는 단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한단냐? 애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니 말은 뭐야. 강간은 남성이 여성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거니까 데이트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응, 맞아, 맞아. (.) (.)"

"으이구.. 너 바보냐,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왜 데이트 강간이 불가능해. 너 강간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흐음..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럼 너 니 남자친구 있잖아, 너 개랑 키스



해 봤어?"

"앗.. 그런 질문을... 헤헤.. 아.. 부끄...응... 해 봤어...."

"그래? 그럼 너 개랑 잔 적 있어?"

"뭐? 아니....."

"좋아. 너 만약에 너는 개랑 자고 싶지 않은데 개가 막 자자고 하면 어떻게 할래?"

"어..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싫은걸..."

"아니, 니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개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 잘 모르겠어, 지금 생각으로 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개가 나랑 자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해서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개가 너 싫어할까봐 무서워서 개랑 자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응... 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치잇.. 근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그럴지 안 그럴지..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길지도 잘 모르겠구.. 히잉.. 그런거 왜 물어보는 건데?"

"잘 들어. 넌 원하지 않는데 개가 원해서 개랑 자면, 그게 바로 강간인거야. 데이트 강간이 바로 그런 거라구."

"뭐? 그게 어떻게.. 강.. 그거야?"

"왜/냐/면.... 이이구, 이것야. 제발 강간이라고 말 좀 해. 내가 답답해 죽겠네. 너 강간이라는 말하면 누가 너 때려준다냐? 왜 그 표현을 니가 큰소리로 뽀뽀하게 말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라구.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창피해? 오히려 숨기고 그러면 더 이상하고 은밀한 쪽으로 에너지가 나간다구! 이런 또 흥분해 버렸네... 어..



무슨 애
기 하고
있었지?
아, 맞다.
그게 왜
강간이
냐면, 강
간이라는
건 꼭 육체적
인 폭력을 가해

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당하면 그걸 강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강간이 더 무서운 거구."

"그.. 데이트.. 강.. 강간이.. 왜 더 무서운 건데?"

"그러야 당연하지. 너도 지금 그랬잖아.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야.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있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사귀는 사이니까 하고는 넘어가 버린단 말야. 하지만 그건 분명히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너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을 하려고 한다면 넌 그걸 당연히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네 남자친구가 네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일거야. 그러니 데이트 강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야."

"저기.. 말야.. 다 좋은데.. 그 성적 접촉이니... 이런 표현 안 쓰면 안돼니? 듣는 내가 민망하다. 야...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다르게 어떻게? 얘기했잖아. 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에의 위치에 내버려 두지 말아. 그건 너에게 결코 도움이 안 돼.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세상이 그래 너 참 예쁘구나 하고 알아줄 것 같니? 알건 알고 표현할 건 정확히 표현해야지. 너 자신을 당당하게 세상에 내 보이란 말야."

"아니.. 난.. 꼭 순진한 척 하려는 건.... 아난데.. 난.. 그냥...."

"말 우물쭈물하지 말구. 한 마디만 더 해 볼까? 이미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도 데이트 강간은 일어날 수 있어. 성관계를 가지고 나면 많은 경우 '익숙함'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둘 중의 한 명이 원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가지는 건 옳지 않지. 이전 부부 강간이란 같은 맥락이지. 결혼을 했다고, 혹은 연인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건 강간이라구. 알겠어?"



"그래.. 그래.. 알겠어. 니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다. 휴우... 그나저나.. 너 책임져. 너 때문에 나 고민생겼잖아. 나 이제 개가 나한테 자자고 하면 어찌나 고민해야 할까. 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히잉..."

"어이구.. 니 몸에 관한 건데 그럼 고민해야지. 열심히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말야. 그걸 확실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 그렇게 내가 선택한 다음에는 네가 스스로 네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췌... 너 미워... 나 구박만 하구..

이렇게 엄청난 고민거리만 던져주고..."

"이보세요. 데이트 강간이 뭐냐고 먼저 물어본 사람은 당신이라고요^^ 그리고 구박은 무슨 구박이야? 내가 이렇게 예뻐해 주는데, 싸랑하는 자기.. 왜 그래용~~~"

"으이구.. 췌~ 알았어, 알았어. 여하튼 곰곰이 생각해 볼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 먼저 가봐야겠다. 내일 봐."

"그래, 안녕, 내일 보자."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



interview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유쾌한 Girl이 만나 본 세 번째 신나는 女子

마이머 노영아

- '97 유진규네 몸짓 입단, 아람예술제/도파니 예술제/수원 아름다운 무대 '꿈' (듀엣, 한국마임 '97 '몸짓여행' (단체)
- '98 젊은무대 '98장 '검은비닐', '형' (단체), '여성마임의 밤' 마임의 집 '진혼' (개인)
- '99 여성민주회 1주년 기념공연 '진혼' '99춘천마임축제공식초청 '빈손' (단체)
- '00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 독일 하노버 엑스포 공식초청 '빈손'
- '00.8-'01.8 폴란드스테판니자알코프스키선생님께 마임사사 [스튜디오MIMU]
- '01 폴란드마임축제공식초청 [빈손]-유진규네몸짓, [청조의신비]-스튜디오MIMU, [꽃] (개인), 마임 '01 [형],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마임강습 -침묵의 절규 강원재활원예술제 마임지도 -천사의 기도, 속초상업고등학교 마임지도 -WWW.파.COM
- '02 '마임의 집' 시와마임의 밤 [밤안개] (개인), '02춘천마임축제 움직이는 조각상연출 [몽경- 닥종아인형이미지] 현재 유진규네 몸짓단원

메일주소요? ahamime@....그리고 그게 안 되면 lovemime@....으로 보내시면 될꺼예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춘천 곳에서 열렸던 마임 축제에 참여하느라고 어느 때보다도 바빴을 그녀를 섭외하는데까지는 성공하기는 했는데, 그녀의 사정상, 그리고 유쾌한Girl의 사정상, 이번 달에는 부득이하게 이 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진행을 위해 알게 된 그녀의 이메일 아이디는 ahamime, lovemime... 온통 마임, 마임, 마임이었는데, 그녀의 마임에 대한 열정을 이쯤에서 우선, 대강의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접을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대중의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이라.... 함안 할아버지댁의 시골집, 마당과 불 때는 아궁이, 그리고 시조집이요.

마이머.. 어찌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한 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 그대로 열심히 걷고 있는 그녀.

마이머 노영아 씨...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 지가 문득 궁금해진 유쾌한Girl은 다짜고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구석이 있었다. 뭐, 그녀가 회상하는 시골집의 풍경이야 그다지 새롭을 것 없는 전형적인 것이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아버지 대신, 시조창을 해주시던 할아버지가 계셨고, 옛날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조르는 꼬마 대신 시조창에 화답가 부르기를 즐기던 꼬마, 노영아씨가 있었던 것이다. 배우가 되고 싶었다는 어린 시절의 변함 없는 꿈은 이 때, 이미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몇 해전 노영아씨의 할아버지는 별세하셨고, 그분의 빛 바랜 초록색 시조집은 이제는 노영아씨에게 물려져 노영아씨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었다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뭐...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하하..



초등학교 시절의 노영아 씨는,
국어 시간에 희곡이 나오면 꼭 큰
소리로 읽기 위해 손을 뻗었고,
다른 친구가 희곡을 읽게 되면 그
친구 읽는 것에는 신경도 안 쓰고
속으로 희곡의 주인공인양 글을
읽으며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 허
우적대기가 일쑤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락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가정 형
편이 어려웠던 중학교 시절에는
텔런트가 되어 돈을 벌어 집안을
돕겠답시고, 휴학시켜 달라고, 담
임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조르는
통에 선생님을 무척이나 난감하게
하기도 했고, '내 평생에 공부는
고3이 끝이다' 하는 결심으로 연
극영화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
그야 말로 목숨을 걸었다던 고등
학교 시절까지... 그녀의 학창 시
절은 주위 사람들을 항상 긴장 시
켰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바
람 잘 날 없었다는 표현이 정말
딱 이었다.



입시에 실패하고 부산 여전 비서 과에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산 여전
연극 부에 다녔다는 게 훨씬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 연극영화과에 가
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내보지도 못
하고, 연기학원 한 번 다닐 수가
없었던 그녀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었으나 입시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배우가
되겠다는 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이 없다 못해, 흔들린 적도 없었
고, 그러한 그녀의 굳은 결심은 그
녀로 하여금 슬퍼 할 새도 없이 곧
장 다른 길을 찾게 했다. 이 대신
잇몸이라고, 그녀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는 대신, 연극부가 가장 활
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찾기 시작
했고, 그리하여 선택된 것이 부산
여자 전문대학교 비서과, 아니 연
극 부였다. 그리하여 2년 내내 그
녀는 연극 부에 다녔다. 1학기 공
연 때 주연을 맡고, 관람오신 선배
의 권유로 극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졸업이었다. 학
교 축제 때 사회를 보는 것으로 어
찌 어찌 빈 학점이 대신 되어 지는
과목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그 당시 노영
아 씨가 재학 중이던 학교의 학과
장은 '더 머물러 봤자 정신 못 차



리는 골칫덩어리'를 어떻게든 졸업시키기 위해, 학
과 교수들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아주 난리였죠... 저, 22살에는 머
리 깎고 절에 들어갔었어요.. 소리 배우겠다고..



학과장의 사정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졸업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입단하게 된 극단, 그
래도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녀
가 말한 '난리'는 극단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스님
의 권유를 단 번에 OK 해 버린
것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스님의 권유란 다음 아닌 '소
리 배우러 가자'는 것이었던
것. 그녀가 되고 싶었던 '배우'
는 소리, 춤, 연기를 두루 갖춘
사람이었고, 그런 배우가 될

꿈에 한껏 부풀어 있던 그녀에게 소리 배우러 절에 가자는 스님의 제안은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것이었다면 그렇지, 절대로 이상하고 생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2살의 나이로 극단 생활을 청산하고,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을 따라 경남에 있는 천태사 라는 절에 들어가 머리 깎고 소리를 배우기를 1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녀는 절에서 나와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소리에 대한 욕심이 커져 있던 터라, 또 다시 그 이 대신 잇몸 정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소리 공부를 하며 사물놀이를 배우고, 민족음악원에도 잠시 있다가, 동해안 별신굿을 배우러 다시 강릉으로 내려가, 그녀가 진정한 배우라고 생각한 '무당'이 되려는 결심도 했다가, 다시 춘천행, 유진규 네 몸짓의 단원이 되기로 결정, 오늘에 이르렀다는데, 누가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시련과 이변을 거쳐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되었음이 절절히 전해지는 대목이었다.

폴란드 유학시절은 아마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꺼 예요. 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2000년 8월, 그녀는 '이제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폴란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2001년 폴란드 마임 페스티벌 때, 폴란드 팀 작품과 유진규네 몸짓 공연 그리고 개인 작품 공연을 위해 일주일간 3회 공연을 해야 했는데,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고집을 피웠던 나머지,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단다.



것에서 삶의 쾌감을 느꼈다나?! 아마, 이어지는 공연이 남아 있는 한, 그녀는 절대로, 절대로 죽을 수 없지 않을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된 이후...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무대에 대한 열정은 급성 신경성 위궤양이라는 병을 안고도 그녀를 무대에 서게 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팀과 동료들에 대한 배려라 여긴 그녀의 억척스름은 급기야 그녀를 위출혈과 물도 마실 수 없는 고통의 상태로 내몰았다. 공연 직전까지 화장실에서 뽉뽉대며 피를 토하면서 나는 이제 죽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 이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죽지 뭐, 공연 끝내고..' 였다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 공연을 마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그녀는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 왔고, 그리고 살아 있었다. 여기서 이어지는 그녀의 놀라운 한마디, 다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녀는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도, 계기도 전부 다 모호할 따름이란다. 그러나, 그녀가 여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된 후, 그 이전과는 달리 더욱 잘 챙기게 된 부분들은 생기더라.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책임감. 마이머 노 영 아 씨에게는 그리 많지 않았던 책임감이 여성 마이머 노 영 아 씨에게는 부쩍 부쩍 생기더라고... 또 한가지,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또 그녀는 생활이나 일에서 자신

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게 된 계기가 바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로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와서 따지고 보면, 그녀는 절대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이머라는 나의 이름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이나 말이에요.

금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마이머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이름이 너무도 소중한단다. 마음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초연해 질 수 있는 여유마저 생긴다니, 정말 소중한 만도 하겠다.



작업자로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언제나 가장 힘든 일이라는 노영아씨는 요즘, 여성적 마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녀는 '98년 여성 마임의 밤 행사에서 '진혼'이라는 개인 작품을 공연한 이래로, 여성 민우회 1주년 기념 공연,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마임 강습 등을 진행하면서, '여자들만의' 감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든, 혹은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이든, 결과적으로 '여자들만의' 라는 수식어를 붙이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만든 할 수 없는 영역의 감성에 대해 앞으로는 더 섬세한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 볼 계획도 있다고.

지금 20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뭐랄까, 다 괜찮으니까, 뭐든지, 과감하게 해 보라는 말 정도?!

그녀에게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양로원에도 못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전전하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그러나, 아니 어쩌면 그래서 그녀는 더욱 현실에 충실하게 된단다. 새로운 마임들을 과감히 시도해 내고, 마임 작업에 대한 스스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녀는, 미래를 위해 꾸준한 몸 관리를 하는 동시에, 삶의 체험과 사람들을 소중히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중에 있다고 했다. 지금 20대를 맞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그녀는 '괜찮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했다. 잘못 되어도, 틀려도, 알되가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용하지만 진실한 격려. 그 어떤 똑똑한 충고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듯 한 따뜻한 위로.. 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천천히 살펴, 과감하게 시도해 보라는 그녀의 조언은 어쩌면 한 마디로 파이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유쾌한Girl

● ● ● ● ●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 모임 "유쾌한 Girl"은 고정 인터뷰 코너<유쾌한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를 통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 여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입니다. 유쾌한Girl들이 만나는 사람들, 유쾌한Girl들의 논으로 바라본 세상, 유쾌한Girl들이 유쾌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칠만 버티면

집으로...

강명석

대학생/연재 www.icct.net에서 취미활동 중.



여칠은

지난 4월 6일 www.icct.net에
올라갔던 영화평입니다.
필자와의 합의에 이번 영화읽기에
실게 되었습니다.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1)는 은수와 헤어진 뒤 방향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가 방향을 끝내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 앞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울고 난 뒤이다. 상우는 답답한 행동만하는, 과거만을 기억하는 할머니에게 화도내고 짜증도 냈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지옥같은 마음을 열어보았던 것은 할머니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아픔을 함께 느낄수는 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하고, 언제나 내편이다. 비록 이제는 할머니가 주시는 1000원짜리가 큰 돈처럼 느껴지지는 않아도, 그 1000원에 담긴 나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나 커서 받는 사람이 죄스러울 정도다. 할머니의 나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은 정말로 절대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할머니에게 마음속의 빛을 지고 있다.

상우, 할머니 집으로 가다.

그래서 '집으로...'는 리뷰할 필요가 없는 영화일런지도 모른다. 세상의 다른 모든 영화들의 설정은 그 현실성을 따지게 되지만, '집으로...'의 상우와 할머니의 관계는 한국인이란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다. 상황은 다르지만 할머니는 다 그렇다는 것을 누구나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그저 보고 눈물 흘리다가 잔잔한 미소를 짓고 영화관을 나오면 될 뿐이다. 이 영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말한다는 건 의미 없는 일에 가깝다. '봄날은 간다'의 상우가 할머니의 그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의지하는 것이라면, '집으로...'의 상우는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의 영화이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건 이미 관객의 공감을 사기로 결정되어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영화 속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상우의 뒤를 따라 걷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메이는데 어찌란 말인가.

하지만 '집으로...'는 그저 할머니가 주는 사랑의 절대성만을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도시에서 손자들

과 함께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능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대체 '왜'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핏줄이라는 이유가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할머니가 상우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할머니의 삶을 이루어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이 불가능한 것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의 삶, 자연 속의 삶이다.

돈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상우가 살아왔던 도시의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이 가능한 곳이다. 그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 상우가 어머니가 일을 나간 뒤에도 혼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먹을 것과 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다면 도시에서의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동시에 그것은 소비문화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된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벌어야 하고, 벌기 위해서는 빠르게 일해야 한다. 처음 할머니의 집에 올 때 상우의 모습을 보라. 그는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빨리 움직일 수 있



는 것, 그리고 비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놀꺼리에 집착한다. 그게 도시에서 상우의 삶을 지탱해주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우가 할머니의 집에 와서까지 돈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다르다. 할머니의 삶은 돈 대신 '사람'이 필요한 곳이다. 거의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되고, 돈보다는 한 사람의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생산에 참여하고, 그만큼의 몫을 얻어간다. 그리고 그 생산이란 하루이를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나온다. 그건 상우의 입장에서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지만, 대신 그곳에서는 할머니처럼 '느린' 사람도 살아갈 수 있다. 이곳은 도시의 기준으로 '생산성'을 따져 할머니를 내치지 않는다. 할머니처럼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혹은 상우처럼 아직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자연 속에서는 모두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들은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곳에서 만큼은 할머니는 상우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뿌린대로 거두어가며 함께 살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가 사랑을 부른다

이곳에서의 삶은 지극히 '사람'이 중심이 된 곳이다. 할머니는 글자를 모른다. 하지만 글자를 몰라도 할머니는 살아갈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알고 있고, 그들은 할머니가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니까. 도시인이 볼 때는 글자를 모른 채 버스를 찾아다니는 할머니의 모습이 가슴아플지도 모르지만, 대신 할머니를 위해 모든 사람들, 심지어 버스기사마저도 할머니의 버스타기를 돕는 모습은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가. 글자란 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모를 때 서로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돈도 필요 없다. 할

머니가 돈을 쓰는 이유는 도시화된 삶에 젖어있던 상우를 위해서이다. 상우를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파는 가게에 갈 때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할머니가 아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는 가게에서 돈은 필요하지 않다. 얼굴 아는데, 사는 거 다 아는데 돈이 무슨 필요인가. 필요한 거 서로 교환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꼭 물건 한 개 두 개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서로 처지 생각해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되지. 할머니가 상우에게 주는 사랑은 단지 할머니라는 위치가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기 보다는 그녀가 평생동안 배우고 익힌 삶의 자세를 상우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법이기도 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대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해야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할

머니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은 다시 또 후손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내리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대자연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우와 할머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고, 상우가 할머니의 삶의 자세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가 직접 했을 때이다. 사랑과 육체적/경제적 삶의 편리성은 결코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그 필요에 의해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수록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 할머니의 나이가 될 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할머니의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혹은 느리고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모두 쓰임새가 있고, 단지 느릴 뿐이지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회이니 말이다. 느린 것은 죄악이 아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려야 결과가 겨우 나오는 사회에서 몇 분이나 몇 시간 느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버스 안타고 걷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인가. 또 정말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미 상호의존적인 삶의 자세가 뿌리 박힌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없어진 사람들마저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돕고 의존하며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 사람과 '대화'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할머니의 마을은 서로 돕고 의존하는 사회이고,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회이다. 그렇기에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 존엄성을 인정받는다. 하다못해 아무런 생산성도 가지지 못한 '미친소'라 할지라도 말이다. 도시의 사람들은 집 주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마저도 허용치 않지만, 할머니의 마을 사람들은 미친소 마저



도, 동네 강아지 한 마리마저도 그대로 마을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람가지고 '장난' 치지 않는다(1).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문제는 다시 도시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복수는 나의 것'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도시화되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서로를 개인화시키며 점점 파멸의 길로 나아간다. 현재의 도시의 삶,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란 그런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생산성이 우선시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도 결국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영화를 할머니가 아닌 '외할머니'에게 바친다고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보통 외할머니들은 도시에서 함

게 살지 못하고 시골이나 또 다른 곳에서 떨어져 지내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자신이 평생 배워온 삶의 자세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하니까 말이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할머니들은 어쩌면 그런 함께하는 삶의 자세,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보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으로...'는 따뜻하게 사람을 웃고 울리는 사이 '철학'을 말하는 영화이다. 2



집으로...

/40여장의 이력서

- 남들처럼 살아가기 -

- 전 임 숙 (인문학부 97학번 2002년 졸업생)

1. intro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나이라는 무게가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

제 나이에 대학가고, 때가 되면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장단을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은 취업을 앞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9·11 테러 현장 뉴스보도를 보면서 피해자의 아픔이나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아! 취업이 더 어렵겠구나!" 하며 속쓰려 하던 7개월 전, 그 때 나의 절대절명의 임무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 직장인이 되는 것이 전부였다. 취업이라는 현실에서 뛰어들면서 연세대를 나왔다는 것이 내 경력에 프리미엄을 달아주리라는 착각은 무참히 깨졌고,

인문학을 전공한 여자라는 나의 정체성은 한없이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2. 적격의 붕괴:

이력서 뿌리기 혹은 막 던지기.

5월부터 인턴사원모집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토익점수도 없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나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차츰 알게 되었다. 기업에서 영문과 중문을 제외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구태여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문계중 경영학만이 유일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취업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 대기업 11개 계열사중 인문학부 출신 졸업예정자들이 원서를 낼수 있는



곳은 겨우 한 두 군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 좁은 틀 안에서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유리할까' 따위의 질문은 하지 말기로 하자. 백화점으로 유명한 L모그를 취업설명회에 나온 우리학교 선배는 아예 내놓고 인문학 전공의 그것도 여자를 왜 뽑겠냐고 자신의 회사에 원서를 쓰지 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었다. 200여명의 사원을 뽑은 이 회사에서 여사원은 경우 손에 꼽히는 정도였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H그룹 정보통신계열에서 근무하는 과장은 사석에서 내게 '취업을 한 절반의 여사원은 연줄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남사원들에 비해 너무나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는 여사원들'이었다며 능력을 남자보다 배로 키우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나의 현실은 암담했다. 토익은 800점도 안되고, 학점도 B+ 수준. 나는 기업이 제시한 조건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초조했고 뭐든 해야 했다. 남들처럼 취업을 하려면, 그 사상최악이라는 현실속에서 뭐든 해야 했다. 여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이라는 시장에 팔릴수 있는 적정수준의 상품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였다.

40 여장의 이력서, 어쩌면 그 이상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자격이 되는 회사라는 판단만 되면 회사 비슷한 모든

곳에 이력서를 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초조함에 몰려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무작정 부딪쳐보았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만 뽑아도 신규 취업시장은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과 경력자들,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 출신 남자들을 포함하면 나의 경쟁력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나를 궁지로 몰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가 시장경제 인력시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큰 실수였다.

3. 면접에서 적절하기.

사람이란 동물은 금새 적응을 한다. 나 역시 이런저런 노력끝에 커트라인을 넘는 토익 점수를 가지고 그동안의 이력서 작성요령으로 서류전형은 통과,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이라는 과정은 정말이지 끊임없는 자기검증의 시간이었다. 거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한 보험회사 서비스직을 지원했던 때 면접에서 나는 차가운 인상을 가졌는데 왜 쌍꺼풀수술을 하지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모든 면접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 커피심부름에 대한 생각, 결혼 후 직장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아야만 했다. 같은 남성지원자들에게 군대이야기를 묻는



것처럼 여성지원자들에게는 결혼과 성평등에 관련된 질문들을 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난 그냥 취업을 하기로 한 이상, 그들이 대답의 내용보다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을 관찰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웃으며 즐겁게 (가중스럽게) 대처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1,2차 면접은 잘 통과해도 임원면접에만 들어가면 낙방했다. 페미니즘 잡지를 만들었던 경력, 자치신문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지난 대학 4년의 세월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시절이었다. 더 우스운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연대출신 여자라는 것이 되려 내 덤미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대 출신 여직원들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만둔다나. 도대체 어찌란 말인가. 그 와중에 한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최종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4. 또 한번의 적절. 그리고 세 길 찾기

창사 40년동안 사무직 대졸 여직원을 처음 받는다는 그 회사에서 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나이든 남자직원들이 새 여자 신입사원들을 보겠다고 구경까지 오는 그 상황. 같은 값에 더 고급인력을 쓸 수 있어 여직원을 처음 뽑았다는 부장의 말에 불안감이 몰려왔지

만 그래도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었다. 그러나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회사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썸을 씹으며 우리를 재평가했던 사장의 결정때문이기도 했고, 절대 다수의 남사원들의 그 호기심때문이기도 했다. 남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하나의 공포였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낯선 공간에서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했고 결국 그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2월이 되자 채용시장은 얼어붙었다. 그 겨울 여자동기들과 엠티를 하면서 낙담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밤을 지냈다. 다시 일학년으로 돌아가면 경영학을 전공하겠다는 친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보다 못한 학점과 영어성적으로 이미 취업이 된 남자 선배들에 대해 "그 남자선배는 되는데 왜 더 나은 점수에 조건인 우리는 안 되는가" 하는 말들을 하며 한숨 쉬었다. 우리에게 대안은 혹 결혼이 아닐까 하는 포기의 말들도 쉽게 내뱉어졌다. 세상의 벽은 높았고 우리는 너무나 우울했다. 그나마 우리를 버티게 한 것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여자동기들이었다. 어딘가 우리가 찾는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서로의 격려가 포기라는 단어를 잊게 만들었다. 새해를 앞두고 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비서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

활비를 벌어 학교를 다녔던 나는 수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이었다. 80만원을 받고 시작한 그 한 달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나는 숨들릴 시간을 찾았다. 그제서야 나란 사람의 경력과 경쟁력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마차 뒤에 쫓기는 사람처럼 여기저기를 헤매일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비서보조 업무를 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서를 넣은 회사로, 지금 나는 홍보실에서 Internal communication을 담당하고 있다. 잡지와 신문을 했던 나의 경력이 인정된 유일한 회사이자 처음으로 자기 소개서를 나만의 방식으로 작성해 통과한 회사였다. 바로 그 곳이 지금의 내가 다니는 직장이다.

5. 직장인이 된 후..

고통스러웠다. 좌절도 했다. 짜증도 났고 포기도 했었다. 그러나 70만명 중 겨우 7만명 만이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던 그 경쟁을 간신히 지나왔다. 여전히 많은 졸업자, 예비졸업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들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한다. 경기가 풀려도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지금의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비보일 수 밖에 없다.

취업전쟁 속에서 난, 마치 암환자들이 좋다는 것은 다해보듯이 아주 절박하게 취업사이트부터 온갖 상담까지 안 해본 것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그런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와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가 참 짜증이 났지만 나 역시 미안하지만 똑 같은 말을 전하고자 한다. 단지 같은 경험을 해본 선배가 존재했다면 보다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나는 후배와 동기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자고. 그리고 나면 과감히 선택포고를 하고 취업전선이란 뒤편에서 들자고 말이다.

남자들은 상사가 시키기도 전에 앞서서 머리에 넥타이를 두르고 춤을 춘다. 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커피를 누가 타느냐 같은 문제를 말하기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페미니즘 잡지를 만들었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절박하다. 젊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사회에서 적응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선적응 후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를 보장하자 기업들은 더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과 함께 여기저기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벽은 높다.

여자가 취업전선에서 살아남아 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남자들보다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취업전선에서 지방대 출신의 졸업생이 명문대 출신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 성격은 매우 다르나 세상에 "조건이 같으면"이라는 식의 가정은 벌써 경쟁 속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던가. 이와 들어 논 말이라면 제대로 들여놓자.

6.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내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6위인 우리회사도 남자사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나는 유사성에 호감을 보내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무의식수준에 깔려있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에 비판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나와 내 후배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당장 내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혹한 기대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다 많은 여사원들을 뽑으려 하는 회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또한 역시 여자들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술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면 처음엔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짐을 날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문화를 변화시킬 힘이 생길 테니까. 육아와 가사라는 이중고, 삼중고 속에서도 남자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아 온 우리의 선배들이 있기에 지금의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 다음 후배들이 더 낮은 문턱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한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믿기에..

전 양숙

인문학부 심리학 국어국문학 전공 97학번 2002년 졸업자
유연강변리 커뮤니케이션실 3월 1일 입사

※ 이 글은
지난 총아학성회 행사인
취업대란 자료집에 들어있던 글입니다.

7만원 여행기

엄마와의 여행

- 기행 '코스모피아' 천체 관측관을 다녀와서 -

토 요일 오후 3시, 청량리역에서 엄마를 기다린다. 봄 날씨답지 않게 햇살이 너무 강해 아프다. 토요일 직장을 마치고 곧장 오는 엄마가 약속 시간보다 늦는다.

언젠가 엄마에게 "우리 어디 여행갈까?"라고 이야기했었다. 꼭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잊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여행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둔 곳이 있느냐고 물으니, 자갈치 시장이 가고 싶다고 하신다.

오, 어머니~ 자갈치 시장이라 함은 부산에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나요? 기껏해야 1박일텐데 부산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둔 여행지를 밝혔다. 그곳은 가평에 있는 '코스모피아' 천체 관측관.

허겁지겁 도착한 엄마와 버스에 오른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엄마는 설새없이 이야기를 쏟아내신다. 오늘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는 이야기, 시계도 안 보고 서둘러 오느라 늦는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 들떠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엄마도 어느 순간 잠에 빠져 버리신다. 버스 차창 밖 풍경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내 잠이 든다.

천체 관측관은 밤에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가

없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도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꽤 깊은 산 속이다. 계속 길을 물어가며 버스를 갈아타려니 엄마는 차를 가지고 올 걸 그랬다고 후회하신다. 하지만 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해도 엄마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차를 운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란 고작 직장과 외갓집과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하나로 마트 정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 밖의 곳은 차를 운전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엄마한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6시였다. 길어진 해는 아직도 하늘에 있었지만 이미 저녁 냄새가 완연하다.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식당에서는 밥 짓는 냄새.. 우리 외에도 대 여섯 팀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정도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였다. 저녁 식사 전까지는

자유시간이어서 우리는 그냥 방에서 짐을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진다. 파란 벽지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바닥에 눕는다. 피곤하신 모양이다. 별 스티커가

잔뜩 붙은 천장을 보며 나에게 말한다.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국문학 같은 거..그럼, 책 많이 볼 수 있겠지? 근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인영아, 나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나한테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것일까? "그럼, 엄마가 왜 못해? 엄마가 하고 싶다는 데 누가 말리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나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역시나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팔답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만 쉰다.

식사 후 바로 관측이 시작된다. 칠판에는 '날씨 : 구름 조금, 관측 조건 : 최상, 달 밝음' 이라고 쓰여있다. 오늘 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은 달이 뜨기 시작하면 별을 보기 어려우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금성, 화성,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과 시리우스, 베텔기우스, 아크투루스와 같은 1등성들을 본다. 엄마는 다른 행성들은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목성만을 기억한다. 목성 주변에 일렬로 늘어선 위성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신다. 너무 예쁘다. 점 네 개가 도로록 붙었네, 하시며.. 산 속



의 날씨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도 밤이 되면 말할 때마다 감이 난다. 추운 날씨다.

2차 관측은 실내 관측이다. 건물 옥상에 위치한 돔으로 이동한다. 기이잉~ 소리를 내며 돔으로 된 지붕이 열리면서 돌아간다. 약간의 설명을 듣고 마차부자리의 산개성단인 M37과 큰곰자리의 이중성 미자르를 관측하고, 아까 야외 관측에서 보았던 목성을 다시 관측한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망원경 안으로 비춰지는 빛도 너무 강해 눈이 아프다. 미자르는 원래 이중성이 아니라 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망원경을 이용해서도 볼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별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진다. 내 눈을 아프게 하는 환한 빛도 수 백년, 수 천년



전에 그 별들을 떠난 빛이라지.. 별을 보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전화가 온다. 그냥 잘 도착했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엄마가 전화를 받으러 멀리로 간다.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를 오고 싶어했단가를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꼭 엄마랑 오고 싶었다. 엄마라고 하늘에 별이 있는 줄 몰랐을 리 없지만, 그걸 꼭 말해주고 싶었다. 아무도 엄마한테 하늘에는 별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그런 걸 바라보고 살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므로. 하지만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답답함은 뭘까? 우리 엄마의 꿈이라는 건 이미 별처럼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나에게 말했던 것, "그냥 아무 것도 하지말고 책만 읽으라고 했으면 좋겠어. 때가 되면 밥만 해서 넣어주고, 그렇게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힘들겠지? 인영이는 그렇게 해라. 내가 해줄게."

...차라리 엄마의 기대대로 자갈치 시장을 가서 회나 먹고,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하루 잘 놀다오는 여행을 계획할걸..

대강의 관측과 설명과 투영관 관측이 끝나고 나서는 모닥불 가에서 자유 관측



을 한다. 자유 관측 때 나는 달을 관측한다. 보름달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데 여러 모로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은 잘 볼 수 있다.

모닥불 가에서 엄마는 별로 말이 없다. 나도 말이 없다. 저 쪽에 막걸리며 안주를 준비해온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이런 곳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올 정도면 정말 가정적인 아버지들인 거야, 우리는."

"옛날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밤에 학교에서 전축을 틀어줬거든. 나와서 춤을 추고 놀라고 그랬어. 그때는 다른 게 없고, 전축이 최고였거든.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밤 날씨가 아주 추운 거야. 친구랑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구경했지." 오늘 날씨도 만만치 않게 춥다. 우리는 이만 꺼지는 모닥불 가를 떠나서 방으로 들어온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얘기하고 놀자던 엄마는 역시 눕자마자 잠에 빠져든다. 예전에는 엄마가 자고 있으면 그 옆에 붙어서 잤던 기억이 많은데 굉장히 오래 된 기억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오래 된 기억이다.

나에게 엄마는 늘 안방에서 자고 있는 엄마.

엄마에게 나 역시 언제나 문을 열어 주지도 못할 정도로 밤늦게나 들어오는 딸이겠지. 왜 잠든 엄마가 있는 안방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했을까? 왜 이따금 나를 보겠다고 억지로, 억지로 잠과 싸우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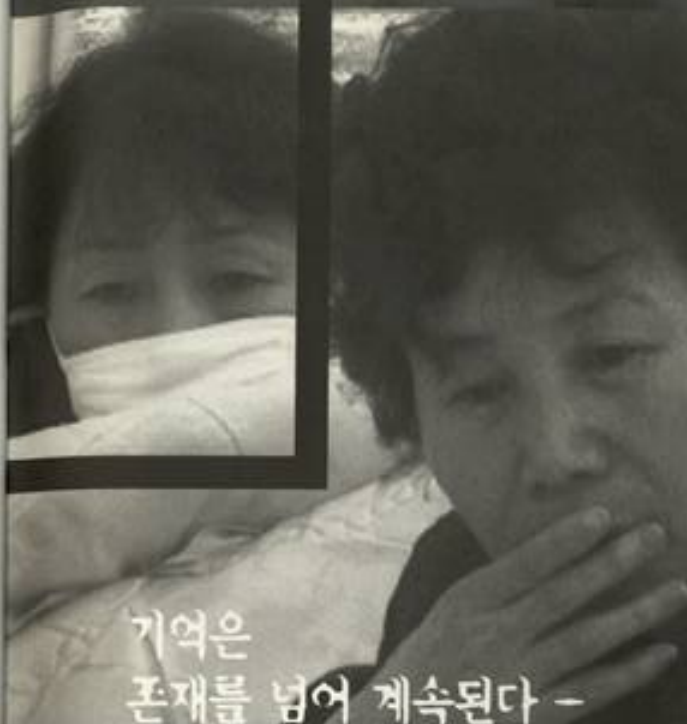
루에서 졸고 있는 엄마를 보면 나의 귀가를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짜증을 냈던 것일까? 이대로 여행이 끝나는 구나 싶어서 아쉬움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창 밖이 밝아올 때쯤에야 나도 잠이 든다.

이튿날 아침의 일정은 태양의 흑점 관측이다. 어제 밤에 잠을 설쳤던 까닭에 태양의 흑점이고 뭐고 그늘에 들어가서 자고 싶단 생각뿐인데 엄마는 산책길이 나 있는 산에 가자고 한다. 산을 오르면서도

주로 엄마가 얘기를 하고 나는 듣는다.

산행을 끝으로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마치면서 나는 다음에 또 다시 엄마와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취향대로 꾸며진 여행. 그 여행에서 또 다시 엄마와 단 둘이 동행을 하고 싶다. 하지만 다음 번에 여행을 간다면 이번엔 엄마랑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다. 아빠 이야기, 수험생 동생 이야기, 요즘 거취 문제가 복잡해진 외할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20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소녀 시절 이야기, 20대 이야기, 엄마가 된 이야기, 앞으로의 꿈 이야기...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밥·꽃·양

밥·꽃·양 연세 상영

언제 6월 8일 늦은 3시와 7시 2회 상영
어디서 상경대학 본관 지하층 각당헌
티켓예매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

상영시간 엄수! 3시와 7시 정각에 영화 상영은 시작합니다.
늦으면 입장할 수 없으니 상영시간 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후에는 감독님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123-3645(홍여학생회실)이나
www.ystfem.or.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대가 어린 나무부터 쓰러집니다. 피해를 입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태풍이 휩쓸고 가면 큰 나무 작은 나무 한꺼번에 넘어져있기 때문에, 뿌리 채 뽑혀나간 나무보다는 좀 더 튼튼한 나무들만 다시 세워보려고 하지요. 복구 작업을 할 때도 약한 나무들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정리해고라는 폭풍이 남녀 차별 없이 몰아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고리를 제일 먼저 날려버렸습니다."

"당하는 자들의 고통도 강한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약한 자가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훨씬 큰데도 말입니다. 고통의 소리조차 뒷전으로 파묻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일 뒷전으로 밀린 소리들을 찾아갔는데, 그게 여성의 소리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월간피플, 임안에 감독 인터뷰 중에서)

98년 IMF 돌풍의 한가운데에서 정리해고의 주된 대상으로 몰려났던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노조 아주머니들. 수십 여 일 간의 투쟁의 결과 그녀들 앞에 던져졌던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벗어나기 위해, 그녀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회사에서, 노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 많은 남성노동자들은 복직된 상황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현실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IMF 이후 먹고살기의 어려움은 흔히 이런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이중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패

를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것만큼 관심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영화 '밥·꽃·양'은 '여성' 노동자 영상보고서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단순히 '여성' 노동자들이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싸워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여성' 노조원의 지위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자존하기 위한 일과 가정 내에서 어머니/아내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것인지, 그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식당 아주머니들의 정규직 복직에 힘쓰지 않는 노조와 아주머니들의 나체시위, 삭발시위, 20여일의 단식투쟁 등 목숨을 건 싸움 앞에서도 '노조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 다른 노조원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가 되겠다. 내부분열 일으키지마라'는 조직보위와 단결의 논리로 이를 막아하려 하는 것이 진보적이라 하는 노조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자로서 일터의 중요성과, 그녀들에게 있어 일의 의미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진보적 남성노동자들의 인식수준이다. 그리고, 성득하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게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에 대한 환상을 심고 있는 '2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허울 좋은 선전구 아래에는, 밥·꽃·양의 아주머니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차별과 무시,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부담이 숨어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너무 고단하지. 그래서 남편이 부부생활을 요구해도 기분 좋게 용이하기 힘들어. 하지만 남편이 원한다는걸 아니까, 내 몸이 힘들지만 난 용해준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어야지. 무슨 나무토막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코고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당한다'고 원하는 대로 못해주는 게 미안하지. 그래도 난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나로서 있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것이니까, 이혼당해도 끝까지 일할거야." 영화 중반부에 삽입된 한 여성노동자의 자기 고백이다.



떡볶이 수다는 왜 떡볶이 수다지?

여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다닐때(혹은 초,중딩때)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아줌마 많이 줘요"하면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먹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때 그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떡볶이수다를 만든다.

남학생들은 잘 이해 못할지 몰라도, 수다는 우리에게 생의 즐거움이었고,
우정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호호호~~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 제14대 총여학생회 -

cool-energy@hanmail.net / 전화 2123-3645(구내 3645)